

〈모두의 소장품〉 프로그램 기획운영비

○작가명 : 권태현

○기획비 : 금1,550,000원(금일백오십오만원)

연번	기획	내역	금액
합계			1,550,000원
1	컬렉티브 연계 프로그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= 500,000원 ○ 노뉴워크 + 1980년대 '여성미술'모임 + 아그라파소사이어티 ○ 배드 뉴 데이즈 퍼포먼스 ○ 컬렉트 컬렉티브 콜렉션 라운드 테이블 등 총 3회 진행 강사료 350,000원 × 3회 = 1,050,000원 	1,550,000원

○ 기획안

1. 기획 방향

- 전시장 1층 '컬렉티브 랩'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지만, 전시 전체 컨셉인 '모두' 그리고 '소장품'이라는 키워드와 '컬렉티브'를 엮어내어 의미를 창출
- '모두'가 결코 불가능하기에 오히려 '모두'를 이야기하는 것이 의미 있다는 관점에서 컬렉티브, 공동체, 집단, 연합, 동맹, 다중 등의 개념들을 재고. 그토록 다름에도 불구하고 '모여 있음'의 문제
- '컬렉티브'를 특정한 시기의 미술 언어로 파악하지 않고, 그 낱말의 뜻 자체로 접근. '신생 컬렉티브' 등의 호명에 대한 비판적 거리 유지
- 동시대 미술계의 젊은 모임들을 소개하고 그들이 원래 하던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주축. 그들이 이전의 모임들과 얼마나 다른지, 또 그들은 서로 어떻게 다른지를 가시화
- 단순한 자기 소개식의 토크를 지양하고, 퍼포먼스/워크숍/렉처/토론회 등 자유로운 포맷을 기획 차원에서 제안
- 프로그램들의 연쇄를 통해 도출될 예상 논점들: 그렇게 다름에도 왜 모여 있는가? 계보가 없는 것들은 어떻게 이어지는가? 등

- 파생된 논점들을 전시 막바지에 뮤지올로지/소장품 문제와 함께 엮어내는 《컬렉트 콜렉티브 콜렉션》 라운드테이블로 조직

2. 프로그램 구성

- 1회차

〈노뉴워크 + 1980년대 ‘여성미술’ 모임 1팀 (‘시월 모임’ 등 제안 준비) + 아그라파소사이어티 페미니즘 모임 - 라운드 테이블〉

페미니즘 미술 모임의 계보, 혹은 계보 없음에 대한 이야기

다른 세대와 다른 언어, 그러나 여전히 모여 있다는 것

그때와 지금은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떻게 같은가

계보가 없는 것들을 어떻게 이어지는가

- 2회차

〈배드 뉴 데이즈 작가 모임 - 퍼포먼스〉

명확한 정치적 색깔을 띠는 시대착오적(anachronic) 예술가들

시대착오성에서 확장하여 소장품에 개입하는 예술 실천을 함께 기획

동시대 미술의 정치성은 어떻게 다시 발굴 되는가

관객들과 함께하는 퍼포먼스 방식 제안

- 3회차

〈“컬렉트 콜렉티브 콜렉션” 종합 라운드 테이블〉

패널: 김종길(80년대 소그룹 운동 연구자), 김장언(피진 콜렉티브 멤버),

박은선(리슨투더시티) + @ + 젊은 미술계 모임 멤버 2명(‘Z-A’, ‘옐로우팬클럽’ 등 제안 준비) / 모더레이터: 권태현